

# 고구려의 대당전쟁(對唐戰爭)과

## 내륙아시아 제민족

—安市城전투와 薛延陀—

徐 榮 教

(동 국 대)

1. 머 리 말
2. 유일 강대국 당(唐)의 등장-兩極에서 單極으로
3. 유목기병의 對고구려전 종군과 그 역할
4. 안시성 공방전 - 겨울작전과 관련하여
5. 연개소문의 對薛延陀 공작과 당군의 철수
6. 맺 음 말 - 안시성이 함락되었다면

### 1. 머 리 말

국가란 외부에 대한 정보의 끈을 놓칠 때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정보망이 지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존립의 전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의 기록은 주목된다.

“建武(영류왕)가 使者(진대덕)에게 열병(閱兵)을 성대하게 하여 보냈는데, 진대덕이 귀국하여 이 말을 아뢰자 당태종이 크게 기뻐하였다. 대덕이 또(말하기를), 고창(高昌)이 섬멸되었다는 말을 (고구려가) 듣고 그 대대로(大對廬)가 세 번이나 관사에 찾아와 축하하였습니다(『신당서』 권220, 고려전).”

“진대덕이 돌아가 아뢰니 황제가(당 태종) 기뻐하였다. 진대덕이 황제에게 그 나라가 고창이 망한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객사에서 접대하는 것이 평상시보다 더 은근합니다(『삼국사기』 권20, 영류왕 24년(641) 조).”

고구려와 실크로드 사이에 교섭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에 다녀온 당사인 진대덕은 자신이 그곳에서 받았던 융성한 접대를 당태종에게 자랑하고 있다. 그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하는 당의 병부 산하 직방의 랑중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실크로드에 위치한 고창국이 당에게 멸망 당한 것을 알고 그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중국 서북방의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머지않아 전운(戰雲)이 요동의 하늘을 뒤덮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과거 수(隋)가 서북방을 평정하고 그 예봉을 요동으로 돌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고구려인들에게 고창국 멸망은 대당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신호였다.

본고에서는 중국 서북방의 제민족이 고구려와 당(唐) 사이의 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떠한 변수가 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당시 중국 서북방의 제민족들의 반당적인 움직임은 상당수가 당의 고구려 침공시기에 발생한 것이 확실하며, 그것은 고구려에게 절대 유리하게 작용했다.

고구려의 산성들은 공고하며 당군이 함락시키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고구려의 국제정치를 상대적으로 방기할 수도 있다. 당시 고구려의 국제정치는 이미 사료에 나와 있고, 선학들이 이미 언급했기<sup>1)</sup> 때문에 연구사적으로 볼 때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선학들은 전쟁은 군사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당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서북방 유목민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sup>2)</sup> 그래도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1) 쓰에마쓰에 의하면 고구려는 西隣北狄諸族과 연결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원에 수립된 강력한 국가는 고구려의 북적제족과의 연결이나 동맹을 금단시켰다고 한 바 있다(末松保和, 『高句麗攻守の形勢』, 『靑丘學叢』 第五號, 1931年 8月發行, 149-150쪽) 이용범도 北周末 利稽察과 고구려의 충돌 그리고 수양제 시대에 계민가칸 牙帳에 고구려 사신의 출현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력충돌이든 평화적 교섭이든 고구려와 돌궐 양자의 접촉은 잦았다고 본 바 있다(李龍範,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關』, 『史學研究』 4, 1959, 73쪽).

한편 이기백도 1967년에 나온 개설서에서 만주와 반도의 북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고구려가 돌궐과 연결하여 수에 대항하려 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고구려와 동맹 관계에 있는 백제는 바다 건너 倭와 통하고 있었고,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되는 돌궐·고구려·백제·왜의 동맹관계의 진영이 있었다고 한다(李基白, 『韓國史新論』 [1967] 1987, 63쪽).

2) 김선옥은 상대국 문제에 제3국을 이용해 보려는 국제외교 활동에 고구려도 당에 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그 예로 고구려가 薛延陀의 수장 夷男(眞珠可汗)을 포섭하기 위해 경제적 흥정을 추진시킨 사실을 들고 있다. 양측의 이러한 국제정치무대에서의 경쟁은 실전 이외의 또 다른 전쟁 같은 것이라 한다(金善昱,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 靺鞨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16, 1985, 16쪽).

노태돈은 645년 당태종의 침공시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薛延陀에 사절을 보내 동맹을 맺고자 하였고, 그 해에 설연타는 당의 하남 즉 오르도스 지역의 하주를 공격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안시성에서 패배하여 퇴각한 다음해 당은 薛延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계속될 대고구려전에서 봉착할 수도 있는 후방에 대한 공격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뒤에 고구려도 내륙아시아 국가들과 교섭을 추구해 당을 다른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였다고 한다(盧泰敦, 『高句麗 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大同文化研究』 23, 1989; 『고구려사연구』 1999, 540쪽).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고구려가 서북방의 유목민족들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반당적인 행위로 내몰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구려의 대당전쟁이 서북방 유목사회는 물론 실크로드와 티벳고원에 이르는 지역의 정세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며,<sup>3)</sup> 그것은 서북방의 제민족이 당의 영향력이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sup>4)</sup> 그야말로 요동(遼東)에서의 전쟁발발은 유라시아를 요동(搖動)케 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북방의 최강국 동돌궐의 해체와 당의 유일 강대국으로의 등장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에 투항한 10만에 달하는 돌궐인들이다. 다음으로 645년 당의 고구려 침공에 동원된 돌궐 기병들의 전술적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안시성 공방전이 진행된 기간과 당군의 겨울작전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과연 고구려가 안시성전투에만 모든 국운을 걸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안시성에서의 당군의 철수원인에 대한 해명이 진정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이러한 고찰들의 해답이 될 것이다.

당과 고구려 사이에 서북방의 여러 유목민들을 놓고 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중국사서에 보이는 서북방 제민족들에 관한 방대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필자의 미진함 때문에 상식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되도록 노력했다. 고구려와 당시 유일 강대국 당의 대결구도와 연계된 유라시아 제민족의 움직임을 일반 독자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다.

3) 徐榮教,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2002.

4) 段連勤, 『丁零, 高車與鐵勒』, 上海人民出版社, 1988, 473-482쪽.

## 2. 유일 강대국 당(唐)의 등장—兩極에서 單極으로

630년 동돌궐이 당에 의해 격파되었다. 이 사건은 고구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당시 고구려가 예기치 못했던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였다.

수년 전부터 힐리가칸(頡利可汗)이 동돌궐의 피지배 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시필가칸(始畢可汗)의 아들 돌리가칸(突利可汗)이 그에게 대항하고 있다는 소식을 고구려인들은 듣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당이 동돌궐의 내부분열을 획책하고 있으며, 초원에 폭설이 내려 목초가 줄어들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sup>5)</sup>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630년 이정이 이끄는 10만 당병이 그렇게 쉽게 돌리가칸을 항복시키고, 힐리가칸을 포획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당태종이 저자세를 취할 만큼 동돌궐은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618년 수가 붕괴되고 이연·이세민(唐太宗) 부자가 주둔지 산서의 태원으로부터 수의 수도 장안으로 들어가 일거에 정권을 수립할 때 동돌궐 기마군단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당시 이연(唐高祖)은 물론이고 중국 북부에서 몸을 일으킨 군웅들은 모두 동돌궐 가칸에게 신하의 예로 대했다.<sup>6)</sup>

그때 동돌궐의 세력 범위는 동쪽으로 만주 일대까지, 서쪽은 지금의 청해성과 신강성 동부에까지 펼쳐져 있었다. 거란·실위·토욕혼 등의 유목민족과 실크로드의 고창 등이 모두 동돌궐의 세력 아래 있었다. 그 뿐인가

5) 고구려는 당이 건국한 바로 그 시기부터 장안에 매년 빠짐없이 사신을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해 왔다(『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 영류왕 조를 보라).

6) 陳寅恪, 『論唐高祖稱臣突厥事』, 『寒柳堂集』, 上海古籍出版社, 1980, 103쪽.  
護雅夫,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I, 東京 山川出版社, 1967, 177쪽.

중국 본토 안에도 1백여 만명 이상이 그들에 속했다. 당시 동돌궐은 아시아에서 거의 모든 민족의 주인이었다.<sup>7)</sup>

동돌궐은 620년 이래로 북중국에 대한 약탈을 자행해 왔다. 당고조 이연에게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그는 장안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연이 장안 입성시 동돌궐의 힘을 빌린 급전의 대가였다. 그는 굴욕적으로 돌궐에게 원조를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금·옥·비단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sup>8)</sup>

626년 6월 궁중 내의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세민이 당태종으로 즉위했다. 이세민이 자신의 형제와 조카들을 죽이고, 아버지 이연을 연금한 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은 즉각 북방의 초원으로 흘러 들어갔다. 태종의 궁색한 상황을 동돌궐은 정확히 간파하고, 젊은 새 황제를 그냥 두지 않았다. 즉위한 바로 그 달에 힐리가칸은 10만 기병을 이끌고 장안 부근까지 진격해 왔다. 이때 장안성 안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은 겨우 수만에 불과했다. 힐리가칸은 위수(渭水)의 편교까지 진출한 후 사신을 성안으로 파견하였다.<sup>9)</sup>

당시 정황은 압도적으로 동돌궐이 유리한 상태였다. 대군을 동원하여 침입해 온 유목군대를 당태종은 무력으로 막아낼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sup>10)</sup> 동돌궐은 수확 없이 절대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태종은 어떠한 굴욕이라도 참고 전쟁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장안성에 있는 재물을 닥치는대로 모아 힐리가칸에게 바치고 화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7) 『通典』 卷197, 邊方典 13 突厥 上.

8) 『大唐創業起居註』 권2를 보면 몸을 일으킬 당시 唐高祖는 劉文靜(유문정)을 동돌궐에 파견하여 원조를 요청했으며, 始畢可汗(시필가칸)의 도움으로 그가 장안을 점령하고 당제국의 창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9) 『新唐書』 卷215, 돌궐전 상 힐리전.

10) 『舊唐書』 卷67, 李靖傳, “(태종이 말하기를) 지난날 국가가 처음 열렸을 때 太上皇이 백성을 위하여 突厥에게 臣下를 청하였다. 짐은 이것으로 마음이 애통하고 머리가 아팠다”.

당태종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굴욕적이지만 돌궐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은 당시의 객관적인 정세를 고려하면 탁월한 선택이었다. 만일 태종이 체면 세우기에 급급하여 동돌궐과 맞섰다면 이제 막 건국한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동돌궐에 대한 마지막 굴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북방의 상황이 달라졌다. 627년 동돌궐 내부에 반란(突利可汗)이 일어나서 힐리가칸의 지배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당 조정에서는 그 기회를 이용하자고 주장이 나왔으나, 태종은 그 반란의 결과로 힐리가칸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완전히 불리하여졌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관망하도록 하였다.<sup>12)</sup>

629년 한 해 동안 초원에서 내전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고 있었다. 그해 말에 당태종은 개입할 때가 온 것을 확실히 하였고, 630년 초에 당군은 초원으로 침입하여, 봄에 힐리카간을 생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숨막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고구려 수뇌부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삼국사기』 권20, 영류왕 11년 조의 기사는 “가을 9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태종이 돌궐의 힐리가칸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고, 겸하여 봉역도를 바쳤다”라고 한다. 고구려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최강의 돌궐이 붕괴되고 새로운 강자, 당이 등장하는 것을 목도한 고구려는 향후에 엄청난 파란을 직감하고 당에게 다가섰던 것이다. 중원이 서북방을 장악한 것은 유목군대가 고구려를 휩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5년 수가 돌궐 계민가칸(啓民可汗) 휘하의 2만기(騎兵)를 동원하여 거

11) 룩판텐 著, 宋基中 옮김,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66쪽 참조.

12) 『구당서』 권194, 돌궐전 상; 『資治通鑑』 卷192, 唐紀8 貞觀 2年 4月 丁亥 조(이하 기사, 년월은 1956년 中華書局本에 의거한 것임, 이하 본문 인용에는 년 월 생략하고 쪽만 표기함).

13) 이 기록은 『구당서』 권199, 고려전과 『신당서』 권220, 고려전에 보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태종이 힐리를 사로잡은 것은 630년의 일이다. 『구당서』 고려전에서는 정관(貞觀) 2년(628)에 돌궐의 힐리가칸을 파(破)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위의 힐리를 628년에 사로잡았다는 『삼국사기』 기록은 『구당서』의 그것을 편의적으로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란을 유린하는 것을 고구려는 목도한 바 있다. 이때 돌궐군대가 고구려 상단(商團)으로 위장했다는 것은<sup>14)</sup>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612년에 가서 고구려는 수양제에게 이끌려 온 처라가칸(處羅可汗)의 서돌궐 군대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다. 수양제는 고구려 침공에 돌지계, 우문술(宇文述) 등의 이민족 출신 장수를 동원했다.<sup>15)</sup> 번장(番將)들이 중국의 황제에게 대우받았던 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느린 병력 때문이었다.<sup>16)</sup>

630년 동돌궐의 붕괴는 당에게도 커다란 변화였다. 『자치통감』 권193(6074-6075쪽)에 의하면 부족민을 거느린 돌궐추장들이 대거 중국 내지로 유입되어 왔으며, 그 규모는 10만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태종은 이들을 중국 내지에 안치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당시 이른바 돌궐항호(突闕降胡) 문제는 조신(朝臣)들 사이의 최대 쟁점이었다. 논쟁은 수년간이나 끌었고, 결국 돌궐항호의 하남분치론(河南分置論)이 채택되었다.<sup>17)</sup>

태종은 내항한 돌궐인들에게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추장들에게는 전원 장군·중랑장의 관직을 수여했다,<sup>18)</sup> 항호 한사람이 내항할 때마다 사물(賜物) 5필·포(袍) 1령(領)을 지급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했던 것이다.<sup>19)</sup>

이러한 조치는 돌궐인들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외팽창 내지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중국 내지로

14) 『신당서』 권103, 위운기전.

15) 『수서』 권84, 돌궐전.

『구당서』 권199, 철록전.

16) 景龍 2년(708)의 일이다. 經略使 周以悌가 忠節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高官顯爵을 아끼지 않고 당신을 대우하는 것은 당신에게 部落의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홀몸으로 입조하게 되면 일개 늙은 胡일 따름이다...”라고 했다 한다(『자치통감』 권209, 당기 25 경룡 2년 11월 庚申 조).

17) 『구당서』 권61, 濫彥博傳.

18) 『구당서』 권194, 돌궐전.

19) 『구당서』 권62, 李大亮傳.

향복해 온 자들이었지만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한 무력집단이었다.<sup>20)</sup>

태종은 유목민의 습성을 속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탁월한 전투력이 어디서 기원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sup>21)</sup> 당조는 이미 초기에 다분히 유목민의 향기가 있는 군사조직과 기마전력을 근간에 두고 있었다.<sup>22)</sup>

내향한 돌궐인들이 당의 대외원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634년 6월 토욕혼 정벌에 유목군대(契必과 党項)가 동원되었고, 같은 해 12월 토욕혼 정벌에도 계필 돌궐이 참여했다.<sup>23)</sup> 638년 토번(吐蕃)의 송주

20) 수말 농민군의 전술을 흡수한 결과 당의 기병이 중장기병에서 경기병으로 변모했다고 본 견해도 있다. 수말의 농민봉기를 거치면서 수·당군의 병종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余昊奎,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2000, 181쪽). 이점 경정할만한 지적이다. 하지만 농민군이 제대로 騎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말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살 이전에 말을 타고 질주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가능하다(『庭訓格言』[출판연도 불명. 1730년에 쓴 응정제의 서문이 실려 있다] pp. 106b-107; 조너슨 스펜스, 『사냥과 원정』, 『강회제』, 이산, 2001, 58쪽에서 재인용).

한편 당의 기병조직에서 중장기병이 없어진 것도 아니며, 그 비중도 적지 않았다. David A. Graff에 의하면 645년 고구려 침공시 당태종 직속 휘하 1만의 중장기병이 종군한 바 있다고 한다(David A. Graff, *Medieval Chinese Warfare(300-900)*, Routledge, London, 2002, p. 196) 그의 지적대로 돌궐항호는 당 군사력에 주요 기여자였다(앞의 책 p. 192).

당대에 와서 경기병화의 경향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은 당조가 변병을 이용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사실 이세민(당태종)은 수말의 내란기부터 돌궐기병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인물이 史大奈이다. 그는 원래 서돌궐의 特勤이었다. 수대 處羅可汗과 함께 내향하여 양제의 고구려침공에 종군한 바 있다. 唐高祖가 목을 일으킬 때 부족을 거느리고 그 예하에 들어가 장안을 점령하는데 활약하였고, 사씨라는 성도 이때 하사 받았다. 그 후 이세민을 따라 薛舉·王世忠·竇建德·劉黑闥 등을 제압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 그는 당건국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변장이다(『신당서』 권110, 사대나전·『자치통감』 권181, 수기5 양제 대업 8년 정월 조). 수말에 部落千餘戶를 이끌고 내향한 말갈족의 추장 突地稽도 그러하다. 그는 唐武德(618-626)初에 定州에 출정하여 이세민(당태종)에게 스스로 節度를 청하고 劉黑闥을 토벌하는데 힘을 쏟았다. 632년에 高開道가 돌궐병을 이끌고 幽州를 침공하자 이를 격파했다(『신당서』 권110, 이근행전). 당조는 건국기부터 돌궐기병이나 말갈기병을 이용했다.

21) 『大唐創業起居注』, 上海古籍出版社, 1982, 1-2쪽 참조.

22) 杉山正明, 『유목민이 본 세계사』(이진복 옮김), 학민사, 1999, 233쪽.

(松州) 침공시에도 이를 막기 위해 집실사력(執失思力)의 돌궐군대가 동원되었고, 그 이듬해 실크로드의 고창 정벌시에도 돌궐 계필 기병 수만이 참전하였다.

동돌궐의 항복 소식을 접한 고구려 수뇌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을 것이다. 10만명의 돌궐인들이 항복해 중국 내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향후 대규모의 유목군대가 당에 이끌려 고구려로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 너무 한꺼번에 대규모로 몰려온다면 속수무책이다. 그것을 막아내야 고구려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 유목기병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장성(長城)이란 장애물밖에 없다.<sup>24)</sup>

『삼국사기』 권20, 고구려 본기 영류왕 14년(631) 조를 보면 “(631년-필자) 2월에 왕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쪽으로 부여성에서 동남쪽으로 바다에까지 이르러 천 여리가 되었다. 무릇 16년만에 공사를 마쳤다”라고 한다.

### 3. 유목기병의 對고구려전 종군과 그 역할

645년 당의 고구려 침공시 동원되었던 유목기병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자.<sup>25)</sup> 먼저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태종 정관 18년 11월 갑오(甲午) 조

23) 『자치통감』 권194, 당기10 정관 8년 6월·12월.

24) 余昊奎의 앞의 논문을 보면 천리장성에 대한 상세한 논증을 하고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25) 프랑스의 철학자 탈레즈는 그의 저서 *A Thousand Plateaus*의 12장 유목론 논고-전쟁기계에서 ‘포획장치’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전쟁기계(유목민)가 국가에 의해 포획 당할 우려는 항상 상존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전쟁기계를 포획하여 자신의 군대로 편성해 왔으며, 이렇게 포획된 군대는 더 이상 전쟁기계가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국가에 대항하는 모든 전쟁기계에 대항하는 수단, 혹은 한 국가가 배타적으로 다른 국가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쟁기계가 국가에 의해 포획 당할 때 전쟁기계는 본성과 기능이 변한다는 것이다(G. Deleuze & F. Guattari, *A Thousand*

를 보자.

又以太子詹事左衛率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帥步騎六萬，及蘭·河二州降胡趣遼東

요동도행군총관 이세적이 보기 6만 및 난주와 하주의 향호(돌궐인)를 이끌고 요동으로 출발한 것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 이세적이 보기 6만과 2주에 거주하던 돌궐인 유목기병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2주의 향호와 관련하여 『신당서』 권220, 고려전이 주목된다.

以李世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江夏王道宗副之。張士貴，張儉，執失思力，契苾何力，阿史那彌射 姜德本，麴智盛，吳黑闥爲行軍總管隸之 帥騎士六萬，趣遼東

『신당서』 권2, 본기 태종 18년 11월 갑오 조를 보면 “張亮爲平壤道行軍大總管，李世勣·馬周爲遼東道行軍大總管，率十六總管兵以伐高麗”이라 하여 고구려 침공에 16명의 총관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위의 『신당서』 고려전에서 8명의 총관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 2주의 돌궐기병을 이끌었던 것은 집실사력, 계필하력, 아사나미사 3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들은 휘하의 부족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對고구려전에 참여한 변장은 또 있다. 『신당서』 고려전을 보면 안시성 전투에서 아사나사이가 돌궐 기병 1천을 통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그는 여기서 고구려에 이끌려 온 말갈군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당서』 권199, 고려전을 보면 이사마(李[阿史那]思摩)가 백암성 전투에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pp. 351-352, pp. 357-361, p. 418).

서 부상 당한 기록이 보인다. 또한 『구오대사』 권25(당서1 무황기 상)를 보면 “始祖拔野 唐貞觀中爲墨離軍使 從太宗討高麗薛延陀有功 爲金山道副都護 因家於爪州”이라 하여 서북 변경의 조주 방면에 있던 사타족 수장 발야의 목리군도 참전한 것이 확인된다.

그야말로 당의 고구려 침공에 집실사력, 계필하력, 아사나미사, 아사나사이, 이사마, 목리군사 발야 등이 통솔하는 대규모 유목군대가 종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수성전을 주로 한다. 그렇다면 기동력을 가진 돌궐기병은 요동전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주지하다시피 산성이란 바둑판의 바둑알과 같이 점으로 연결된 집을 짓고 있다. 산성의 군락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어느 산성을 함락시키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퇴로나 보급로를 차단 당할 위험성이 크다. 어느 한 성이 적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성들에 있는 군사들이 밖으로 나와 지원을 해준다.

요동성이 당군의 공격을 받을 때 그러했다. 『구당서』 고려전을 보면 “국내성과 신성의 보기 4만이 요동(성)을 구원하러 온 것을 강하왕 도종(당태종의 조카)이 기병 4천명을 이끌고 맞이하여 크게 무찔러 천여 급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고 있고, 『신당서』 고려전에 같은 내용이 전하는데 여기서 고구려 군은 기병 4만으로 나와 있다. 물론 당 기병 4천은 강하왕 도종의 관할 아래 있던 유목기병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국내성과 신성에서 파견된 고구려 구원군이 패하여 퇴각하자, 요동성은 당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다. 대체로 적에게 포위되어 고립된 성의 함락은 시간문제이다. 『구당서』 고려전을 보자.

“고려는 우리에게 포차(抛車)가 있어 3백 근(斛)의 돌을 1리 밖까지 날린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두려워한 나머지 성 위에 나무를 쌓아 전투(戰樓)를 만들어 날아드는 돌을 막았다. (하지만) 이적이 포차를 벌려 놓고 공격하니, 돌에 맞는 곳은 다 무너졌다. 또 충차(撞車)로 밀어 누각을 때려 부수니, 내려앉지 않는 누각이 없었다”.

외부의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포위된 성은 당군의 공성기의 공격에 직접 노출된다. 백암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요동성을 함락시킨 당군은 백암성(白巖城)을 공격하였다. 이때에도 오골성에 있는 고구려군 1만이 이를 구원하려고 왔다. 하지만 이들은 계필하력이 이끄는 유목기병 8백에 걸려 1천명의 전사자를 내고 물러갔다.<sup>26)</sup> 포위된 백암성에는 당의 공성기의 공격으로 돌이 비 내리듯 쏟아졌고,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sup>27)</sup>

우리는 여기서 유목기병의 역할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고구려 군대를 평지에서 차단하는 것이다. 고구려 구원병들은 평지전을 피할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동성을 구원하기 위해 온 국내성과 신성의 고구려 군대 4만은 유목기병 4천의 공격을 받고 격퇴되었고,<sup>28)</sup> 백암성을 구하기 위해 온 오골성의 고구려군(1만)은 계필하력의 기병(8백)에 의해 격퇴되었다.<sup>29)</sup>

유목기병의 위력은 대단했다.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각 전투마다 유목기병을 만난 고구려군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유목전사들은 고구려군에게 어떻게 위협을 가해야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sup>30)</sup>

26)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태종 정관 19년 5월 을미 조.

27) 『구당서』 권199, 고려전.

28) 물론 이때 고구려군은 요동성에 나중에 도착한 이적 군대의 공격도 받았다.

29)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정관 19년 5월 조.

30) 645년 당시 당군이 전력이 강화된 사실을 인지한 고구려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으며, 고연수·고혜진 그리고 연개소문이 전개한 대평원회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 고구려가 오래 전부터 대평원회전을 준비해 왔으며, 천리장성은 평원전술을 도입하려는 세력의 주장으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余昊奎, 「高句麗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2000, 183-184쪽).

천리장성이 기동성이 강화된 당군을 막기 위해 축조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내에 평원전술을 도입하려는 측의 주장으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고 보는 것은, 천리장성의 위치와 그 형태가 어떻게 간에 필자 지식의 박약함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고구려가 군사방어체계를 평지로 확대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는 독자들이 당의 유목기병과 평지전투에서 고구려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

한편 공성기를 다루는 것은 한인(漢人)보병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목 기병이 고구려의 구원군을 차단하고 나면 한인 보병에 의해 성은 여지없이 포위되었다. 성은 외부와 단절된 채 파괴적인 공성기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거대한 돌이 날아와 성벽을 붕괴시키고 누각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그들이 성안으로 쳐들어와 공포에 질린 고구려인들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이다.

물론 유목기병만이 고구려 구원군과 전투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은 유목기병과 한인 보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구원군을 격파한 느낌이 강하다. 당군이 안시성에 임박하자 이를 구원하기 위해 연계소문은 고연수·고혜진을 필두로 하는 15만 군대를 파견했다.

『구당서』 권199, 고려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적이 거느린 병력은 1만의 장창보병과 5천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병과 기병이 절묘하게 결합된 그 자체 하나의 독립부대로서 완결성이 있다. 당태종의 병종 구성도 보병·기병이 혼합된 4천이다.<sup>31)</sup>

장손무기는 정병 1만 1천 명을 맡았는데,<sup>32)</sup> 그의 정병의 병종 구성은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뒤로 돌아가서 고연수의 배후를 치는 것은 빠른 기동력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의 병력이 일으킨 먼지가 당태종 공격신호의 서막이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병(漢兵)과 번병(蕃兵)이 결합된 전투는 어떠한 효력을 발휘했을까. 『구당서』 권199, 고려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적은 보병·기병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안시)성 서쪽 산 고개로 가서 진을 쳤다.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고구려군은 평지에서 돌궐기병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점 고구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군이 평지전을 한 것은 고구려가 굳이 의도한, 예정된 것이라기보다, 어느 고구려의 한 성이 당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다른 여러 성에서 구원병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31) 『신당서』 고려전을 보면 순수 기병 4천이다.

32) 『구당서』 권199, 고려전

이적은 아마도 고구려 군대와 정면 대결을 준비한 것 같다. 태종은 보병·기병 4천명을 거느리고 고각과 정기로 전군을 지휘했으며, 고구려군 측면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손무기는 우진달 등 정병 1만 1천명을 기병(奇兵)으로 만들어서 산의 북쪽에서 나와 고연수의 배후를 치는 역할을 맡았다.<sup>33)</sup>

처음 이적의 병력이 미끼가 되었다. 고구려군은 이적의 군대만을 보고 앞으로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장손무기와 당 태종이 고구려군의 후면과 측면에 협공을 가하자, 이적의 장창보졸(長槍步卒)이 장창을 세운 벽으로 변신했다.<sup>34)</sup> 보병 1만이 갑자기 장창을 세우고 정연한 대열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들이 기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군에 의해 후면과 측면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적의 기병 5천도 다른 한쪽 측면에서 고구려군을 압박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유목기병이 고구려군에 충격을 주는 망치라고 한다면 한인으로 구성된 이적의 장창보병은 모루였다. 당은 안시성 앞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한인보병과 유목기병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sup>35)</sup>

#### 4. 안시성 공방전—겨울작전과 관련하여

순식간에 패배를 맞이한 고구려 장군(고연수·고혜진)들은 15만의 병력을 모두 이끌고 항복해 왔다. 간부급 3천 5백에게는 군직을 주어 중국 내

33) 『구당서』 권199, 고려전.

34) 『구당서』 권199, 고려전.

35) 徐榮教, 「나당전쟁기 石門전투」, 『東國史學』 38, 2002; 당 태종은 북방유목민족과 농경민 한족의 확연히 다른 습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연유하는 군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지로 옮기고, 말갈인 3천 3백은 생매장시켰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 주었다. 노획한 말이 3만필이고, 소가 5만두였으며, 갑옷이 1만벌이었다.<sup>36)</sup>

이보다 앞서 이세적은 계모성을 함락시켜 2만戶와 식량 10만석을 얻었고, 나아가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군사 1만, 호구 4만, 군량 50만석을 노획했으며, 과명진은 비사성을 함락시킨 후 8천명을 포로로 잡았다. 당태종은 친히 백암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1만과 군사 2천을 포획했다.<sup>37)</sup> 당군은 대고구려전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645년 6월 주필산의 전투 이후 이어 치러진 안시성 공방전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군의 안시성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 645년 8월에 시작되었다.<sup>38)</sup> 『구당서』 고려전을 보면 “8월에 안시성 동쪽으로 진영을 옮겨 이적이 드디어 안시성을 공략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먼저 강하왕 도종(道宗)이 성의 동남 모퉁이에 거대한 토산을 쌓아 공격하였다. 그러자 안시성 수비군은 성 위에 목책을 쌓아 성의 높이를 올리고 대항했다. 이적이 서쪽 성벽을 공성기로 공격했다. 거대한 돌의 세례를 받은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시성 수비군은 무너진 성벽을 곧 목책으로 막았다.

한편 강하왕 도종이 밤낮을 쉬지 않고 나무와 흙으로 토산을 쌓아 점점 성벽으로 육박하였다. 그러나 도종과 그 부관 부복애(傅伏愛)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토산은 안시성 성벽 방향으로 무너졌고, 성벽과 토산이 이어지자 고구려군 1백명이 쳐들어와 토산을 점령해 버렸다. 마지막 4일동안 당군은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했지만 안시성을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당태종은 전군에 고구려 철수 명령을 내렸다. 『구당서』 고려전을 보자.

36) 『구당서』 권199, 고려전.

37) 『신당서』 권220, 고려전.

38) 『구당서』 권199, 고려전.

“태종이 요동(遼東城)의 창고에 군량이 거의 바닥이 나고 사졸들이 추위와 동상에 시달리므로 철군을 명하였다.”

여기서 당군의 철수원인을 겨울의 추위와 군량이 소진된 것을 들고 있다. 만주의 혹독한 추위는 군사들이 버티기 힘든 것이다. 수많은 병사와 군마가 먹어치우는 식량도 만만치 않았던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식량이 떨어져 당군이 철수했다는 것은 완전히 수궁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

주필산의 전투에서 노획한 말이 3만필이고, 소가 5만두였다.<sup>39)</sup> 『신당서』 고려전에서 고구려 침공을 앞두고 당태종이 내린 조칙(詔敕)을 보면 “오늘 날은 다행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오직 운반하는 수고로움이 염려될 뿐이므로 소와 양을 몰아다 군사들을 먹이려 한다”라고 하여 운반이 용이한 소를 식량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신당서』 고려전은 “태종이 반사(班師)를 명하여 함락시킨 요주와 계주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하여 추위와 군량 부족을 철수 이유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신당서』 고려전에서는 이세적이 계모성을 함락시켜 식량 10만석을 얻었던 사실과 요동성을 함락 후 군량 50만석을 노획한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물론 『구당서』 고려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나아가 『신당서』 고려전은 “요주(요동성)는 속(粟)이 아직 10만곡(斛)이 남아 있고”라고 하여 당태종의 고구려 철수시에도 상당량의 곡물이 남아 있었던 것을 명기하고 있다. 적어도 철수시 당군의 식량 상황이 심하게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겨울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렇다. 당군의 겨울작전 수행능력은 대단했다. 『삼국사기』 권22, 보장왕 18년(659) 조를 보면 “겨울 11월에 당나라 우령군 중랑장 설인귀 등이 우리 장수 온사문과 횡산에서

39) 『구당서』 권199, 고려전.

싸워 이를 깨뜨렸다”라고 하고 있고,<sup>40)</sup> 『동서』 보장왕 19년(660) 조를 보면 “겨울 11월에 당나라가 좌효위 대장군 계필하력을 패강도 행군대총관으로, 좌효위 장군 유백영을 평양도 행군총관으로, 포주자사 정명진을 누방도 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와서 공격하였다”라고 하여 겨울에 작전을 수행한 것을 명기하고 있다.<sup>41)</sup>

고구려 침공에 있어 겨울이라는 계절이 작전에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장점도 있었다. 『삼국사기』 권22, 보장왕 20년(661) 조를 보자.

“9월에 연개소문은 그 아들 남생을 보내 정예군 수만으로 압록수를 지키게 하였으므로 여러 군대가 건널 수 없었다. 계필하력이 왔을 때 얼음이 크게 얼었으므로 하력이 무리를 이끌고 얼음을 타고 물을 건너 북을 치고 진격하니 우리(고구려) 군사가 무너져 달아났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강물을 얼어붙게 만들어 군대가 도하하는 다리를 만들어 준다.<sup>42)</sup> 계필하력이 이끄는 유목기병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단숨에 도하하여 고구려군을 대파했던 것이다. 계필하력의 행군은 압록강의 결빙시기를 계산하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즉위년(661)년 12월 조의 기사는 주목된다.

“이 해 12월, 고구려는 유독 혹한이었다. 貝(대동강)가 동결되었다. 이

40) 『자치통감』 권200, 당기 고종 현경 4년 조.

41) 『자치통감』 권200, 당기 고종 현경 5년 12월 조.

42) 후대 고려시대의 자료지만 이와 관련하여 金永夫 墓誌銘은 주목된다.

“금(大金) 황통(皇統)4) 2년(인종 20, 1142)에 정주분도(定州分道)가 되어 나갔는데 □ 땅이 동변(東蕃)과 강을 경계로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얼음이 얼면 백성들을 징발하여 그것을 깨뜨리게 하여 노략질을 방지하였다…(大金皇統二年 出爲定州分道 □地與東蕃界河 舊時氷結則 發民椎鑿 以絕虜掠…)”: 金龍善 編,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 出版部, 1997, 改訂版, 218쪽.

때문에 당군은 운차(雲車)나 衝車(衝-원문)를 連하고 북과 장을 울리며 진격해 갔다.”

위의 기사는 661년 고구려에 흑한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평양성을 포위한 당군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대동강(貝江)의 동결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강은 평양성의 해자(垓字) 기능을 했다. 그것의 동결은 해자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성벽으로 운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위의 기록에서 당군이 공성기를 적극 이용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661년 고구려는 당군의 침공을 잘 막아냈지만, 어쨌든 그 해의 흑한은 오히려 방어하는 고구려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던 면도 있었다.

만일 당군이 안시성을 함락시켰다면 그 후 평양으로 남진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 645년 가을 8월에 안시성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당태종은 그것을 함락시킨 후 오골성을 유린하고 겨울 10·11월에 압록강이 동결되면 도하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후술한 바와 같이 661년 9월에 계필하력의 유목기병이 결빙된 압록강을 도하하여 고구려의 정병 3만 명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포획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을 지휘하던 남생은 겨우 목숨만 건졌다고 한다.<sup>43)</sup>

압록강을 건넌 후에도 도하해야 할 강은 또 있다. 과거 수많은 수나라 군대가 빠져죽은 청천강을 도하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이후에도 대동강이 동결되어 있어야 평양성의 성벽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당군이 안시성에서 패배한 후 군량의 사정도 나빠졌을 것이고 만주의 추위는 당군을 오한에 떨게 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당군의 철군이 유희를 100%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8월에 본격화된 안시성공략이 갑자기 그 다음달인 9월에 갑자기 종료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43) 『삼국사기』 권22, 보장왕 20년 조.

## 5. 연개소문의 對설연타 공작과 당군의 철수

우선 편년체(編年體)로 된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태종 정관 19년 6월 조부터 9월 조까지 살펴보자. 태종이 안시성 부근에 도착한 것은 645년 6월 병진이었다. 그리고 바로 안시성을 공격했다. 그러자 6월 정사에 고구려의 북부육살 고연수·고혜진이 병력 15만을 이끌고 안시성을 구하러 왔다.

전투의 승패가 판가름나고, 고연수 등이 당태종에게 항복한 것은 6월 기미였다. 그리고 9월 임신 이후의 어느 시기에 당군은 안시성에 대한 총공격을 실시한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안시성은 끝까지 버티었다.

물론 『자치통감』의 기록대로 9월에 가서 당군이 안시성에 대한 총공격에 들어갔다고 결코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당서』 고려전을 보면 그해 8월에 안시성에 대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군은 9월 임신에 가서 철수를 했다. 당군이 안시성을 본격적으로 공략한 것은 8월의 어느 날에서 9월 임신까지이다. 당군은 거의 2개월의 기간 동안 안시성을 공격하다가 철수했던 것이다.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장기전이라 하기도 힘들다. 두 달에 걸친 공격에도 안시성이 함락되지 않자, 당군이 철수한 것일까.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설연타의 새로운 가칸의 등장에 주목하고 싶다. 정권 645년 9월 진주가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자 발작(拔灼)은 적자 예망(曳莽)을 습살(襲殺)하고 그 부중(部衆)을 손에 넣은 뒤 다미가칸(多彌可汗)으로 즉위했다(曳莽恐拔灼圖已 先還所部 拔灼追襲殺之 自位爲頡利俱利薛沙多彌可汗).<sup>44)</sup>

다 아는 바와 같이 유목사회의 내분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었다. 내분은 유목제국을 파탄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야망에 찬 유능한

44)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태종 정관 19년 9월 조.

새 지도자가 배태되는 산고이기도 했다. 새로운 영웅적 지도자의 출현은 그를 구심점으로 한 강고한 단합을 가져와 더 강력한 유목국가의 등장을 의미한다. 내분은 유목국가를 분열 와해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강화·팽창시키기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었다.<sup>45)</sup>

안시성은 함락되지 않고 북쪽 초원에서 설연타의 강력한 새 가칸이 즉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다. 645년 9월에 정권을 장악한 발작은 동년 12월에 가서 10만의 기마군단을 이끌고 하주(夏州-오르도스)를 공격하였다. 그것은 그야말로 태종의 고구려전쟁 종군을 틈탄 것이었다. 이때 설연타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 집실사력이었다.

『신당서』 권220, 고려전을 보면 집실사력이 645년 대고구려 전선에 종군한 것이 명기되어 있다. 이는 『당대조령집』 권103, 번이토벌(蕃夷討伐) 친정고려(親征高麗) 조에서도 확인된다. 정관 18년(644) 태종의 고구려 침공시 내려진 조문에 “行軍總管執失思力 行軍總管契苾何力 率其種落 隨機進討”라 하여 집실사력이 계필하력과 함께 각기 휘하의 종락(種落)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출진할 것을 명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집실사력은 설연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요동의 안시성에서 선발로 하주로 이동한 것이 된다. 『자치통감』 권198(6232-6233쪽)을 보면 그는 645년 12월에 돌궐병을 이끌고 와서 설연타의 반란을 진압했다고 한다. 집실사력만이 설연타 진압에 종군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오대사』 권25(당서1 무황기 상 조)를 보면 “始祖拔野 唐貞觀中爲墨離軍使 從太宗討高麗薛延陀有功”이라 하여 사타족의 목리군사 발야가 645년 대고구려 전선에 종군했고, 동시에 설연타를 토벌하는데도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45) J. Fletcher, 'The Mongols: Ec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6-1, Harvard-Yenching Institute Cambridge Massachusetts, 1986, pp. 11-50.

그 이듬해인 646년에도 집실사력은 철록 제부를 제압하기 위해 돌궐병을 이끌고 출정했다. 이때 계필하력도 호병(胡兵)을 거느리고 종군했으며,<sup>46)</sup> 대주도독 설만철과 영주도독 장검도 각각 휘하를 거느리고 출진하였다. 문현상 집실사력, 계필하력, 장검, 사타족 수장 발야 등이 고구려 전선으로부터 이동한 것이 확인된다. 설연타와 철록(鐵勒) 제부(諸部)를 치기 위해 요동에서 북방 초원으로 당의 대규모 병력이 이동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군의 안시성 철수를 설연타의 반란이라는 국제적 상황이 놓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설연타의 새로운 가간의 등장과 그가 거느린 10만 대군의 하주 침공은 우연일까. 단정할 수 없다. 645년 6월경 연개소문이 설연타에 대하여 공작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及高麗敗於駐驛山 莫離支使靺鞨說眞珠 啗以厚利 眞珠懼服不敢動<sup>47)</sup>

645년 6월 정사에 주필산에서 고구려 중앙군 15만이 대패하자 연개소문은 말갈을 시켜 상당한 물자를 보내 진주(夷男)가간을 매수하려고 했다. 6월 정사 이후에 연개소문의 지령을 받은 말갈의 사신이 출발했다면 막북에는 7-8월에 도착했을 것이다.

연개소문이 보낸 고구려의 말갈인 사절을 접견했지만 진주가간은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진주가간이 645년 9월 임신에 사망한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급사(急死)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고구려 사신이 도착할 시기에 임종의 병석에 누워 있으리라 짐작된다.

연개소문이 설연타의 수장에게 접근한 것은, 설연타가 630년 동돌궐 붕괴 후 초원에 등장한 최강자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626년으로 거슬러 올라

46)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정관 20년 6월 조.

47) 『자치통감』 권198, 당기14 태종 정관 19년 9월 조.

간다. 그 해 동돌궐은 힐리가칸과 돌리가칸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내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627년 몽골고원에 대재해(大災害)는 동돌궐의 지배를 받던 회홀(回紇)·발야고(跋野古)·부골(仆骨)·동라(同羅) 등 철륵 제부족들의 반란을 촉발시켰다. 철륵부의 대반란은 알타이산 서남에 머물고 있었던 서돌궐 치하의 설연타부(部)에게도 곧장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서돌궐도 통엽 호카칸(統葉護可汗, 617-630)과 막하돌(莫賀咄)이 분쟁상태에 있었다. 철륵부(部)의 반란소식을 접한 설연타부의 추장 이남(夷男·진주가칸)은 628년 막북으로 이동을 했다. 반란군에 가담한 설연타부의 이남은 동돌궐을 물리쳤고, 나아가 막북의 제반란 세력을 규합했다.

당태종이 동돌궐의 힐리가칸을 견제하기 위해 설연타의 수장 이남을 진주가칸(眞珠可汗)으로 책봉한 것도 그때였다. 그 이듬해 이남은 당태종과 연합하여 남북에서 동돌궐을 협공하여 630년에 완전히 대파했다. 630년 동돌궐이 격파된 후 북방은 힘의 공백 상태가 초래된 것이 아니다. 설연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뿐이었다.

당과 설연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태종은 막북의 패자로 등장한 설연타의 진주가칸을 회유할 목적으로 공주를 보내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643년에 진주가칸이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나오자 당태종은 공주를 보내 주려고 했다. 그러자 계필하력이 적극 반대했다.<sup>48)</sup> 『자치통감』 권 197(6199-6210쪽)을 보자.

“폐하께서 갑자기 혼인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천연(遷延)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부터 친영지례(親迎之禮)가 있었다고 하

48) 642년 철륵別部 계필部民들이 막북의 강자 설연타를 추종하려고 하자. 태종의 지시를 받은 계필하력은 이들을 설득하려 갔다가 감금되었다. 태종이 설연타가칸에게 화번공주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그는 풀려났다(『구당서』 권109, 계필하력전). 태종이 약속을 이행하려는데 계필하력이 적극 반대한 것은 자신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는데 만약 이남(진주가칸)에게 친영하라고 조칙을 내리면 경사에까지 못 온다 하더라도 영주(靈州)까지는 응당 와야 할 것이지만, 그는 (생포될까 두려워) 감히 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거절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남은 성질이 사나워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부하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니, 1-2년도 못되어 병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쟁립하게 되니 (우리는) 없어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주가칸은 당이 약속한 공주를 요구했으나 계필하력의 건의를 받아들인 당태종은 친영지례를 빌미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사실은 당시 북방 초원과 중원은 물론 고구려까지 다 알려져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남(진주가칸)은 공주를 요구하면서 그 이전부터 변경을 약탈하고 다녔기 때문이다.<sup>49)</sup> 그야말로 이남의 공주 요구와 태종의 거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었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설연타의 진주가칸에게 접근한 것은 이러한 당과의 불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사신이 도착할 당시 진주가칸은 병석에 있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당군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고구려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진주가칸의 죽음과 함께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공주 문제 때문에 진주가칸이 화병으로 병석에 몸져 눕게 되고 얼마가지 않아 병사하게 될 것을 당이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계필하력의 외교정책 상 조언은 정확했다. 그 자신이 유목출신으로서 그들의 습성과 내부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죽으면 두 아들이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당은 설연타의 가칸(夷男·眞珠毗伽可汗)이 사망하기 전부터 그의 두 아들 사이의 경쟁관계를 조장하여 설연타를 약화시키려고 했다. 『자치통감』 권195(6140쪽)를 보면 637년 이남의 적자인 예망(曳莽)을 돌리실가칸(突利

49) 『자치통감』 권196, 당기 13, 태종 정관 17년 윤월 조.

失可汗)으로, 서자 발작(拔灼)을 사엽호가간(四葉護可汗)으로 책봉하여 각각 동방과 서방을 통할하게 했다.

당태종이 645년에 고구려 침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기에 설연타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을 반대한 여러 신하들의 충고<sup>50)</sup>에도 설연타의 범변(犯邊)에 대한 우려는 빠져 있다. 당태종이 수도를 비우고 요동으로 갔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 악재의 여러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들어보자. 먼저 위지경덕(尉遲敬德)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천자의 수레가 만약 遼左(요동)로 간다면 황태자는 또한 정주(定州)에 있게 됩니다. 동서 이경(二京- 낙양과 장안)은 부고(府庫)가 있는 곳이니 비록 진수병(鎭守兵)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비게 될 것입니다. 遼東은 길 이 머니, 玄感(양현감)의 變亂과 같은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변우(邊隅)의 소국은 친히 만승(萬乘)을 괴롭힐 만한 것이 못되니, 양장(良將)에 맡겨 최멸(摧滅)토록 할 것을 엮드려 청합니다(『구당서』 권68, 위지경덕전).”

위지경덕은 황제의 고구려 원정을 틈타 수대의 양현감 반란과 같은 변고가 닥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위지경덕이 우려한 것은 설연타가 아니라 당조정 내부의 반란이었다. 612년 수양제의 1차 고구려 침공은 백만대군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배로 끝이 났다. 복수심에 포로가 된 양제는 613년에 바로 2차 고구려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때 후방에서 양현감의 반란이 일어났다.<sup>51)</sup>

50)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태종 정관 18년 12월 조를 보면 오르도스에 있는 돌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群臣皆以爲‘陛下方遠征遼左 而突闕於河南 距京師不遠 豈得不爲後患! 願留鎭洛陽 遣諸將東征’”).

51) 禮部尙書 양현감이 “천하를 위해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그만두고 어진 백성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대의 명분을 내걸고 고구려 침공에 반대하여 쫓기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고관이 양제타도의 기치를 명백히 내걸고 반역을 꾀하였다는 사실은 위기에 직면한 지배 계층의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었다.

만일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다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이며, 국가의 수족인 변방의 사경(四境)보다 심복(心腹)인 양경(兩京)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저수량(褚遂良)의 주장도<sup>52)</sup> 이와 같은 우려에서 나왔다. 고구려 원정실패와 수의 멸망이라는 파국은 그에게 너무나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리라. 그래서인지 이대량(李大亮)도 임종직전에 태종의 요동지역(遼東之役)을 중지하고 종묘사제의 京師와 관중에 관심을 쏟을 것을 상포했다.<sup>53)</sup> 태종은 그 반대의 목소리를 일축했다.<sup>54)</sup>

다시 말하지만 태종의 고구려 침공을 반대하는 자들 중에 설연타의 범변을 우려한 자는 없었다. 이는 태종의 고구려 침공을 찬성한 이적(李勣)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날 설연타가 변방에 침입하여 폐하께서 추격하려 하실 적에 위징(魏徵)이 하도 간(諫)하셔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때 추격하였더라면 한 필의 말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였을 것인데, 뒤에 다시 배반하였으니 오늘날까지 한이 되고 있습니다.”<sup>55)</sup>

기회가 왔을 때 고구려를 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은 설연타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적이 설연타의 침공을 우려되었다면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은 할 수 없었고, 당은 당시 고구려에 대한 침공도 감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당이 예측한 것과 너무나 빗나갔다. 당은 발작이 자신의 이복형제를 죽이고 설연타의 부중을 장악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당이 예측한 것은 이복형제 간의 소비적인 혈투였다. 발작은 내분을 청산하고 설연타의 강력한 구심점이 되어 645년 12월, 10만 대군을 이끌고 하주(오르도스)를 침공해 왔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대설연타 공작과 발작(沙多彌可汗)의 성공한 쿠데타

52) 『구당서』 권80, 褚遂良傳.

53) 『구당서』 권62, 이대량전.

54) 『자치통감』 권197, 당기13 태종 정관 18년 12월 조, “陽帝無道 失人已久 遼東之役 人皆斷手足以避征役… 朕今征高麗 皆取願行者 寡十得百… 皆比隋之行怨民哉!”.

55) 『신당서』 권220, 고려전.

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기록은 이점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설연타의 내분은 고구려가 그토록 바라던 결과를 낳았으며, 이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설연타에 파견된 고구려의 사신들은 국운을 걸고 교섭을 진행했던 것이 틀림없다. 645년 6월 주필산의 패전 이후 출발한 그들은 7-8월에 그곳에 도착했을 것이고, 따라서 9월에 진주가칸(이남)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발작의 성공한 쿠데타를 목도했을 수도 있다.

당이 결코 예측하지 못한 내분의 결과에 연개소문이 파견한 고구려 사신이 변수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단정은 유보하겠다. 어떻게 고구려 사신이 설연타 가칸의 아장(牙帳)에 도착한, 바로 그 시기에 반당적인 새로운 가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적에게 위협적인 상대를 부추기는 대외공작은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행위 중의 하나이다.

## 6. 맺 음 말—안시성이 함락되었다면

645년 당시 고구려에서 어떤 사건의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술한 가능성들이 놓여 있었고, 고구려 수뇌부는 그 술한 가능성들 놓고 선택을 해야 했다. 물론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의 수뇌부도 수많은 여러 안을 놓고 선택을 해왔다. 고구려를 침공하는 여부의 문제, 그리고 안시성을 함락시키고 진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두고 진군할 것인가의 문제 등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중의 하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안정성과 효율성이었다. 가령 안시성을 그냥 두고 진군하면 위험성은 크지만 효과적이었다. 안시성을 함

락시키면 안전하지만 평양성으로 진군하는 시간이 지체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안시성 함락은 군사적 효과는 물론이고 고구려 사회에 던져 줄 정치적 효과도 크다.

한편 안시성 앞에서 중앙군 15만이 대파된 후 연개소문에게 선택의 여지는 크게 줄었다. 당시의 전세(戰勢)로 보아 시간이 흐르면서 요동에 있는 여러 성들이 당군에게 차례로 함락될 것이 분명했다. 연개소문 자신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안시성은 완강히 버틸 것은 확실했지만 그마저 장담할 수도 없었다.

645년 9월에 안시성이 함락된다면, 당군은 10월에 건안성을 접수하고 오골성을 함락시킨 뒤 11월에 결빙된 압록강과 청천강을 도하하여 그 이듬해 평양을 함락시켰을 수도 있다. 안시성 함락은 고구려 사회에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부에 배신자가 속출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쿠데타로 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정통성이 결여된 실질적 통치자에 불과했다. 이점은 당태종도 잘 알고 있었다.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시성을 사수해야 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황의 극적인 반전이 필요하다. 당군이 요동성과 백암성, 계모성을 함락시켰고, 안시성을 구원하려간 고구려 중앙군 15만은 대파되고 말았다. 향후 안시성은 당군의 공격을 받아 결국 함락될 수도 있다. 당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고구려가 연전연패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며, 결정적인 반격은 더욱 힘들다.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은 당의 유일한 적수인 설연타를 움직이는 길밖에 없다. 연개소문은 설연타의 수장을 매수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

도박이란 마지막판까지 거금의 돈을 건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 연개소문의 의도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좋은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설연타에 파견된 사신에게 준 공작금은 막대한 규모였을 것이다.<sup>56)</sup> 실패의 가능성이 큰 만큼이나 성공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것

은 국운을 건 도박이었다. 연개소문의 대설연타 공작이 안시성을 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고구려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설연타의 반당적인 새 가칸의 등장이라는 결과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다. 만일 이때 당군이 안시성을 함락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안시성의 패배로 고구려는 멸망 되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당군이 안시성을 함락하고 오골성을 접수한 후 압록강을 건너 평양에 육박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설연타의 10만 대군이 하주를 공략하고 장안·낙양으로 향한다면 당군은 어김없이 철수해야 했을 것이다.

이는 661년의 경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동년 봄 정월에 당은 하북·하남·회남 67주에서 4만 4천의 병력을 모집하고, 부여도행군총관 소사업이 회홀(回紇) 등 여러 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으로 진군했다. 4월에 임아상을 폐강도 행군총관으로, 계필하력을 요동도 행군총관으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여러 번병과 함께 35군이 바다와 육지로 길을 나누어 고구려를 공략했다.

8월에 소정방이 폐강(대동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마음산을 점령한 후 평양성을 포위했다.<sup>57)</sup> 9월에 계필하력의 유목기병이 결빙된 압록강을 도하하여 고구려의 정병 3만명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포획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을 지휘하던 남생은 겨우 목숨만 건졌다고 한다. 계필하력의 유목군대는 압록강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소정방은 평양성을 포위한 상태였다. 고구려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당 중앙조정에서 고구려에 있는 계필하

56)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 보장왕 3년 7월 조를 보면, 고구려가 당의 침공 직전인 644년 7월에 당태종에게 白金을 바쳤다고 한다. 이는 저수량의 반대로 반환되었다. 어쨌든 이 기록은 고구려가 북방유목민족의 수장을 매수할 때 사용한 공작금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57) 『신당서』 권220, 고려전.

력의 유목기병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sup>58)</sup> 고구려를 궁지에 몰아넣고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앞둔 당은 왜 갑자기 유목군대를 철수시켰을까. 보급이 단절된 것 때문인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662년 2월에 소정방의 당군은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에게 쌀 4천 섬, 조(租) 2만 2천 여섬을 보급 받은 바 있다.<sup>59)</sup>

계필하력의 유목기병이 철수한 후 평양부근에 주둔해 있던 당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삼국사기』 권22, 보장왕 21년(662) 정월 조를 보자. “정월에 좌효위장군백주자사옥저도총관 방효태(龐孝泰)가 (연)개소문과 더불어 사수(蛇水)에서 싸워 전군(全軍)이 전사하고, 그 아들 13명도 모두 전사했다”라고 하여 사수에서 방효태가 이끄는 당군이 전멸한 것을 명기하고 있다. 유목기병의 不在는 당군에게 전력의 현격한 저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계필하력의 유목기병이 철수한다면 평양부근에 잔류한 당군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당수뇌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661년 9월에 압록강에서 고구려 정병을 격파한 계필하력은 무엇 때문에 철수를 서둘렀을까. 『구당서』 권109, 계필하력전을 보자. “龍朔元年… 會有詔班師 乃還 其年(661년), 九姓叛 以何力爲鐵勒道安撫大使”라고 하여 661년 당조정의 소환을 받은 그는 구성철록(九姓鐵勒)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고구려에서 중국 서북방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이 對고구려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북방 유목민의 반란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서북방의 유목민들에게 있어 당의 고구려 침공은 항상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은 이러한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661년에 고구려에게 절대 유리하게 전개된 서북방의 정세변화가 국제적 상황이 낳은 의도하지 않은 우연

58) 『구당서』 권109, 계필하력전.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보장왕 20년 9월 조.

59) 『삼국사기』 권6, 문무왕 2년 조.

의 결과일까. 증거가 없어 알 수 없다.

수문제는 자신의 후궁에게 손을 댄 황태자를 폐하기 직전에 급사(急死)했다고 한다. 그리고 황태자는 무사히 황제(수양제)의 자리에 등극하고 그 후궁을 차지했다. 수문제의 죽음은 자연사(自然死)일까.

두서 없이 수양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도 북방초원에 잠입한 고구려사신을 직접 목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607년 8월 북방초원의 계민가칸(啓民可汗)의 아장(牙帳)에 행차한 수양제는 자신의 후궁을 범침한 사내를 보듯 고구려 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1,200킬로 떨어진 이곳에 고구려 사신이 자신보다 먼저 와서 신임하던 계민가칸과 사사로이 통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10년 전(598년 2월)에 감히 수나라의 영토(요서)를 유린했고, 지금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던 이 북방초원에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는 고구려는 양제에게 치욕감을 주는 존재였다. 후한(後漢)이래 근 400년 간의 분열을 통일한 수제국을 감히 유린하고도 무사히 존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고구려 밖에 없었다. 그 해(598년) 그의 아버지 수문제가 고구려를 치려다 턱없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심사는 더욱 불편했다. 이는 양제의 고구려 침공의 결심을 굳히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

어떻든 중국의 황제에게도 적발될 정도라면 북방초원에 고구려 사신의 왕래의 횡수는 짐작이 가능하다. 645년에도 그것은 어김없이 되풀이 되었다. 당태종의 침공을 받은 위기 상태에서 연개소문은 수천 킬로 이상 떨어진 설연타 가칸의 아장에 막대한 공작금을 지참한 사신을 파견했다. 그는 설연타가 당에 반기를 든다면 당군은 고구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연개소문이 북방초원에만 군사목적의 외교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660년에 가서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자 연개소문의 사신들이 일본열도를 오가는 모습이 사료에 보인다.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원년(662) 3월 조를 보자.

“이 달에 당인과 신라인이 고려를 공격하였다. 고려가 우리(일본)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므로 장군을 파견하여 跬留城(소유성)에 거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당인은 고려의 남쪽 경계를 침략하지 못하고 신라도 고려의 서방의 城壘(성루)를 함락시키지 못했다.”

고구려 원조를 요청하자 일본은 백제에 병력을 파병한다. 고구려의 이러한 조치는 위력을 발휘한다. 한반도 남부에 주둔해 있던 당군과 신라군이 고구려의 남서쪽 국경을 공격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사실 660년부터 663년까지 나당연합군은 백제부흥군과 전투를 하는데 여념이 없었다.<sup>60)</sup> 백제부흥군의 저항은 일본의 군사적 원조없이 불가능했으며, 때문에 고구려 남쪽 국경에서 나당연합군의 압박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당시 일본과 고구려의 군사관계는 긴밀한 것이었다.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즉위년(661) 7월 조를 보자.

“이 달에 소장군(蘇定方)과 돌궐(突闕)의 왕자 契苾加力(계필하력)이 수륙 양로(水陸 兩路)로부터 (평양)성 아래에 이르렀다.”

소정방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상륙하여 평양성을 포위하고 계필하력이 육로로 압록강을 건너온 상황을 일본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일본서기』가 돌궐출신의 장군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고구려 사신의 보고 없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동서』 권27, 천지천황 즉위년(661) 12월 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12월에 고려는, 「이 해 12월, 고려국에서는 유독 흑한이었다. 貝(대동강)가 동결되었다. 이 때문에 … 락…」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일본에게 전황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

60)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년·2년·3년 조.

도 한반도에서 감행될 군사작전계획에 대해 미리 고구려에 알리고 있다.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2년 여름 오월(夏五月) 조를 보자.

“癸丑 朔에 犬上君은 고려에 急行하여 출병의 일을 고하고 돌아왔다.”

일본은 이 보다 2개월 앞서 천지천황 2년(663) 3월에 한반도에 2만 7천의 병력을 출병시킨 바 있으며, 그 해 가을 8월에 나당연합군과 백촌강에서 대화전을 벌인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기록에서 고구려가 일본과의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전투에 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고구려가 당과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넓은 범위의 국제정치를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sup>61)</sup> 평양에 있는 고구려의 중앙본부에서 직선거리로 수천 킬로 이상의 서북방 초원에 이르기까지,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의 경도에 이르기까지 사신과 함께 서신과 공작금이 분주하게 오고갔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3. 7. 10,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대당전쟁(對唐戰爭), 당태종(唐太宗), 설연타(薛延陀), 안시성(安市城), 돌궐기병(突闕騎兵)

61) 우즈베크 사마르칸트시 교외의 아프라시압 도성지에서 발견된 7세기 후반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에는, 鳥羽冠을 머리에 쓰고, 황색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허리에 換頭大刀를 차고, 팔장을 낀 두 사람이 보인다. 여러 자료를 고려해 본다면 고구려 사절이라고 하는 견해들이 유력하다. 그 중에서 북한학자 박진옥은 그들이 연개소문 집권기에 파견한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박진옥, 『쏘린 사마르칸트 아호라샤브 궁전지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8년 3기).

<ABSTRACT>

## The T'ang-Koguryo War and Hsueh-yen-t'(薛延陀)

Seo, Young-Kyo

It was only in the northeast that Tang arms met with a serious setback. In 641, no doubt encouraged by successes elsewhere and by recovery of the empire from the devastation of the civil wars, Taizong(唐太宗) began to contemplate the conquest of Koguryo(高句麗). As the historian Howard Wechsler has suggested, his motives were probably much more complex; they may have included ambition to outdo Emperor Yang of Sui as well as pragmatic concerns that Koguryo not be allowed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by pose a threat to northeastern China.

Preparation for a major campaign began in earnest in 644. A great fleet of 500 ships was constructed on the southwestern coast and along the Yangzi River to transport 40,000 conscript-recruits and 3,000 men volunteers across the sea from the Shandong peninsula to the Korean coast. At the same time, an army of 60,000 Chinese soldiers plus an unspecified number of tribal auxiliaries gathered at Youzhou on the northeastern frontier. This force, under the command of Li Shiji, would advance overland to the Liao River. Li's main attacking force would eventually be reinforced by some 10,000 armored cavalry led by the emperor himself.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se forces, with the sources mentioning no more than 113,000 combat troops traveling by both land and sea, suggests that the Tang strategist had learned from Emperor Yang's(隋陽帝) mistakes and had no wish to court disaster by bringing more men than they could feed. The road, however,

was no easier than it had been three decades before. Not only would the Tang troop face the same obstacles of climate and terrain that had hindered Sui's efforts, but the man-made defenses east of the Liao River were even more formidable since Koguyo had spent sixteen years erecting a strong new belt of fortifications(千里長城) along a front several hundred miles from Puyosong to the Liaotong peninsula.

Li Shiji's army marched from its advanced base at Yingcheng(朝陽) in April of 645. On May 1, he surprised his opponents by crossing the Liao River farther north than they expected. His first objective, the fortress of Kaemosong, was invested on May 16 and fell after a siege of only eleven days. He then turned southwest toward Ryotongsong, the stronghold that had successfully defied Emperor Yang in 612 and 613. On June 7, he defeated an Korean army of 40,000 marching as a relief force of the city, and a few days later he was joined by the emperor and his cavalry escort. Like Keamosong, Ryodongsong was taken with surprising ease. On June 16, a favorable wind enabled the besieger to set the entire city ablaze with incendiary projectiles, opening the way for a successful assault on the wall. The Tang army then advanced to Paekamsong, a short distance to the east of Ryodong, arriving under the wall on June 27. Here the commandant delivered the place into Tang hands. Taizong refused to permit his troops to loot the town and enslave its inhabitants. When their leader protested this departure from established military practice, he undertook to reward the most deserving soldiers from his own purse.

The emperor arrived outside Ansisong(安市城), the next major fortress to the south, on July 18. The following day, he was surprised by the approach of a large relief army of Korea and Malgal(靺鞨). Taizong deployed 15,000 men under Li Shiji as a bait to draw the Koreans while concealing another force of comparable size in a position from which it could debouch into the enemy rear. By doing so, Taizong inflicted a crushing defeat in the battle fought on July 20. The remnants of the

Korean army retreated to a nearby hilltop where they were surrounded by the Chinese. The next day Taizong received the surrender of 36,800 men; the total bag also included 30,000 horses, 50,000 head of cattle, and 10,000 suits of iron armor. Of the prisoners, 3,500 officer and chieftains were sent back to China and 3,300 Malgal tribesman were put to death. The remaining soldiers who were ordinary Korean soldiers were freed and allowed to return to their homes.

After this great victory, however, the Tang campaign began to encounter difficulties. Ansisong put up a more stubborn resistance than any of the other town that Taizong had attacked. As the days and weeks passed and the end of the campaigning season drew closer, the Tang army at Ansisong eventually staked everything on the construction of a huge mound to command the southeastern corner the city wall. However, during the construction, a sudden sortie by the defenders took the mound. Three days of frantic assaults by the Tang troop followed but the Tang troop failed to dislodge the defenders. Just then, in October 645, the situation turned about in Mongolia. Hsueh-yen-t'o new qaghan(拔灼-沙多彌可汗) revolted against Tang's control after the iron-handed dictator of Koguryo Yon Kae-so-mun(淵蓋蘇文) have sent an envoy. Taizong decided to order a withdrawal at Ansisong

At the same time, Taizong launched an offensive that would crush the power of not only Hsueh-yen-t'o themselves, but of all the T'ieh-le(鐵勒) tribes. Upon the arrival of a large combined force of Chinese, Turkish and other non-Chinese troops, the qaghan fled, and was later killed by Uighur tribesmen.

Key Words: T'ang-Koguryo War(麗·唐戰爭), Taizong(唐太宗), Hsueh-yen-t'o  
(薛延陀), Ansisong(安市城), Turkish-Cavalry(突闕騎兵)